지역사회복지와 여성의 비문해

사회교육적 접근

정찬남*

I. 서 론

급변하는 사회속에서는 인간의 생활양식이 복잡화 되기 마련이며, 단순한 모방만으로서는 사회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축적과 문화의 계승도 불가능하게 되어 의도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교육의 필수적인 도구로 문자가 등장하였다.

문자는 인간의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문자의 사용이 필요불가결하게 되었으며, 계속적인 교육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 문명의 새로운 발전을 가속화 시킨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생활의 질과 양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지나친 경제위주의 의식구조는 물질만능 사조를 낳게되었고 과거를 잊어 버린채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해 가는 방법만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결과가 복지사회를 지향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공감하게 하였고, 최근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 모델을 구상하게 되었다.

본인은 최근 변화와 발전의 소용돌이가 심했던 1978년부터 서울 봉천동에서 여성의 생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여성생활연구원의 간판을 걸고 현장에서 여성의 실제적인 고뇌를 접할 수가 있었다. 그 중 가장 심각하게 당면했던 문제는 여성들의 비문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두차례에 걸친 교육위기 (일제 36년의 식민지 시대와 6.25의 참변)의 시대적인 산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비문해자들이 문자문화의 결손집단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남성들 보다도 여성들 가운데서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문자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겪어야하는 각가지 수치심으로 냉가슴을 앓고 있으며 (Cheong, 1990), 사회적으로는 국민의 평등한 발전이란 차원에서 소외집단으로 남아 있어, 이들을 위한 복지대책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사회교육적 차원에서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는 비문해 여성의 실태 및 이들의 문자해득을 위한 노력의 실제적인 사례를 탐구함으로서 사회교육을 통한 문해교육의 강화방안을 밝혀 보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1) 비문해여성들이 겪고 있는 애환의 모습들을 사회교육 측면에서 그 의미를 밝혀보고; 2) 비문해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교육적 노력 및 역사를 고찰하며; 3)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대비한 문해교육의 과제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한국여성생활연구원 원장/인하대 강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해교육과 관련된 제반 연구와 관련문헌의 수집 분석 및 한국여성생활연구원을 통한 비문해여성들의 문해교육의 실태 및 실제를 사례연구적 차원에서 심층 분석 하므로서 문해를 위한 사회교육에의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II. 한국의 문해교육 역사와 사회교육

1. 한국 문해교육의 역사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발표에 의한 우리나라의 문해 교육은 대체적으로 네 단계를 거쳐 바뀌어 왔다. 제1단계가 일제치하의 민족 계몽적 문해교육 운동의 시기, 제2단계는 해방후 국가주도적 문맹퇴치 운동의 시기, 제3단계는 60년대 및 70년대의 유네스코와 학교중심의 문해교육의 시기, 그리고 제4단계로는 1980년대 이후의 성인기초교육으로서의 문해교육의 단계이다(최운실, 백은순, 1990). 제1단계인 일정 때는 조선어 학회를 비롯하여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에서 문맹퇴치 운동 즉 문해교육을 시행하여 여성 비문해자들을 단순문해의 여성으로돌아서게 하였다. 교육의 실시는 주로 야간이나 방학동안, 그리고 농한기를 이용 하였으며 교육기간은 단기(1개월-3개월)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단기교육으로 일단 문해자가 되었던 사람들도 다시 비문해자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은 재교육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해방후, 국가주도의 문해교육이 활발히 전개되었었으나 학교교육이 정상화 되어가고 국민의 교육평균연수가 늘어감에 따라 문맹퇴치 교육은 어느 정도 끝이 난 것으로 생각한 정부는 비문해율 조사 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1960년대와 70년대초의 제3단계의 경우,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비문해에 대한 관심을 보였을 뿐 사실상 문해교육적 측면에서는 거의 잠자는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오늘날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은 정규 교육의 장에서 보다 대부분이 사회교육시설을 통하여 성인기초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김지자, 1990). 문해교육에 실제로 참여하는 교사는 개인의 자아 성취를 위하여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종교 단체나 사회단체 등에서 사랑의 실천적인 입장에서 주로 실시하여 왔으며 이러한 교육은 과거의 문맹퇴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수준의 교육이었다.

그러나 U.N.에서 1990년에 "세계 문해의 해"를 선포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이 새로이 일게되었다. 그 일년전에 문해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등 문해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1989년에 문해교육협회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정부나 사회로부터 이상한 눈총을 받아가며 숨어서 문해교육을 실시하여 오던 사회교육기관및 개인에게 문해교육협회는 문해교육상을 제정하여 해마다 한번씩 시상식을 가지고 있다.

2. 사회교육기관을 통한 문해교육 사례

우리나라의 문해교육은 해방직후의 정부와 민간이 협동하여 힘을 쓰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관으로 부터 탄압을 받거나 외면을 당해왔다. 비문해의 문제가 정규교육 기관의 확대와 더불어 거의 사라진 것으로 그릇 오도되어온 시절부터 문해교육은 YWCA를 비롯한 극히 소수의 사회교육 단체들이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1990년 한국문해교육협회가 창립될 당시 대표적인 문해교육기관으로는 한국여성생활연구원과, 복명평생교육센타, 수도학원과 고려학원, 부산원불교예지원,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신암교회등 일곱군데의 사회교육기관이 활동을 하고있었다. 이들 사회교육기관의 문해교육사례를 간략하게 문제중심으로 기술하고자한다.

대표적인 Y.W.C.A.의 기청 공민학교는 교육부에서 인가된 초등교육과정을 3년에 마치는 곳으로서 우리나라에 단 하나 남아있는 교육기관이다. 교육부 산하의 기관이기에 교과과정도 성인들이지만 국민학교 교과서를 사용하여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랫동안 비문해자를 위하여 공헌을 한 기관으로서 문해교육상을 처음으로 수상 한 바 있다.

다음으로는 1978년부터 문해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두번째로 문해교육 상을 수상한 바 있는 한국여성생활연구원에서는 그간 15년동안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문해교육, 국민 기초교육, 중등 교육과정을 점차적으로 실시하면서 총 9,000여명의 비문해 여성들을 과정별로 학습을 시켰다. 교육과정은 한글 기초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의 12과정이 있으며, 학습과정별로 자체개발된 교재를 출간하여 활용하고 있다.

1990년으로 부터 91, 93년도에 걸쳐 당 연구원에서 문해교육을 수강했거나 하고 있는 학습자들을 보면 (표 1. 참조) 대부분이 30대에서 50대에 속하는 여성들이며 이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4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 50대와 30대의 순이다. 그러나 20대와 60대 심지어는 70대의 여성들도 한글을 깨우치기 위하여 문해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지 않을수 없다.

표 1. 문해교육반 참가여성의 년도별 연령별 분포

연령	1991년	1992	1993년
20-29	4 (0.8%)	4 (0.8%)	5 (1.3%)
30-39	148 (288.2%)	80 (16.4%)	100 (26.7%)
40-49	157 (30.0%)	196 (40.2%)	130 (34.8%)
50-59	144 (27.5%)	172 (35.2%)	112 (30.0%)
60-69	67 (12.8%)	28 (5.7%)	27 (7.2%)
70-79	4 (0.8%)	8 (1.6%)	0 (0.0%)
계	534 (100 %)	488 (100 %)	374 (100 %)

(출처:한국여성생활연구원 집계)

연구원을 찾아서 학습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 생활근거지가 대부분 본 연구원의 위치로 부터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으로 부터 오게 되었는데 이들이 문해교육기관을 처음 찾아오기 까지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원인의 하나는 자기가 활동하는 근거지의 주변에서는 남들의 이목이 두려워 남 모르는 먼 곳을 찾는 까닭이었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문자를 읽을수 없기 때문이었다. 1986년 모 텔리비젼 방송을 통하여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방송이 방영된 후 한꺼번에 200여명의 수강 희망자가 모여들어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다른 어떤 광고 보다도 TV는 확실한 선전매체중의 하나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수가 각 종교단체 및 종합사회복지관등으로 확산이 되면서 점차 수강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지금까지의 문해교육 과정에서 어려운 점으로는 첫째, 교육 대상자의 발굴, 즉 교육을 필요로하는 사람들과 문해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간의 상호 교신의 어려움이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비문해자들은 본인의 문맹상태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노출시키지 않고 교육장소를 찾으려 하는 때문에 대체체적으로 일반적인 사회교육기관에서는 그 기회의 포착이 쉽지 않은 때문이며 둘째로는 성인 학습자를 이해하는 교사 확보의 문제이다. 상대방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유능한 교사를, 그것도 대체적으로 무보수의 자원봉사자의 수준에서 교사를 확보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나이가 든 이후의 문자교육은 상당한 인내와 시간을 요하는 까닭에 장기적으로 이들을 가르쳐 줄수 있는 교사를 확보하기에 애로가 많았다. 셋째, 교재의 개발이다. 성인의 학습에 알맞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진 교과서가 없어서 맨 처음 문해교육을 시작할 당시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국민학교의 교과서를 그대로 활용을 하였으나 문제점이 많았다. 그 이유로는 첫째, 내용이 어린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인이 배우기는 적당하지 않았고 둘째로는 교과서를 학습자가 집으로 들고 다닐 수 없고, 집에서는 책을 펴서 본다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까닭이었다. 왜 이런 국민학교 교과서가 우리집에 있느냐는 가족이나 자녀들의 질문에 너무나도 부끄러워 이리저리 거짓말로 둘러대다보니 예습 복습이 불가능하고 실력의 향상을 기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따라서 그럴듯한 여성교재로 최소한 겉장만이라도 전혀 다른 표지로 심적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하였고 내용에 있어서도 성인으로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분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일상적인 용어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를 느껴서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문해교육의 개념이 기능문해며 생활기능문해, 심지어는 고도의 전문영역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문해교육에의 요구 또한 단순한 한글의 해득으로부터 점차로 한자, 외국어, 컴퓨터의 용어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넓어져 가고있다. 따라서 문해교육은 보다 광범위한 교과과정과 장기의 정규적인 교육의 참여를 필요로 하게되었다. 결국 국민 복지적 차원에서 그리고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사회교육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기초적인 문자생활의 입문에도 들어서고 있지 못한 비문해자들에 대한 전반적 관심은 가일층 그 기법과 교육내용의 충실도 및 고차원

적인 학습으로의 확산이란 측면에서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III. 문해개념의 확산과 비문해인구

1. 문해(Literacy) 개념의 확산

UNESCO는 1962년 비문해자교육 전문가회의에서 건의문을 채택할 때에 문해의 정의를 집단이나 지역사회안에서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상태이며 2-3년간의 국민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술을 가진 개념이라 정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문해의 기준은 시대와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각기 달리 적용이 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문해란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간단한 문장을 확실한 뜻을 이해하며, 간단한 수학능력을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읽거나 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는 문해자의 수준을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받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메시지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카나다의 경우도 역시 9년 정도의 학교교육을 이수한 기초학력수준으로 규정을 짓고 있다.(윤복남, 1990)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학교 3학년 수준의 읽고 쓰고 셈하기를 기준으로 문해의 기준을 삼기도 하였으나(정지웅,1988), 문맹퇴치의 시절에는 이름석자를 쓸수 있느냐?가 비문해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간주되던 시절도 있었다(황종건,1990). 그러나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사회교육전문가들을 대상으로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문해의 수준은 국민학교 6학년의 수학능력 정도로 보아야 할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최운실, 1990).

한편 도시여성애 대한 문해교육연구에서 적용이 되었던 한국여성의 문해수준 조사에서는 1957년의 유네스코 자료를 참고로하여 문해의 수준을 비문해, 반문해, 기초문해, 기능문해의 수준으로 분류하였었는 바, 이에 의한 각 수준의 이해척도는 다음과 같다:

비문해(Illiteracy):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수준, 셈은 전혀 못함;

반문해(Semi-literacy): 자기 이름이나 간단한 단어를 읽기는 하나 쓰지는 못함. 셈하기에 있어서는 간단한 더하기 빼기가 가능함;

기초문해(Basic Literacy):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문장을 이해함과 동시에 읽고 쓰고 할 수 있슴. 버스의 방향표시나 간단한 안내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간단한 편지를 쓸 수 있고 가감승제를 할 수 있음;

기능문해(Functional Literacy): 구청, 동사무소, 은행등을 방문하여 자유롭게 창구에서 신청서를 기입하고 스스로 모든 용무를 볼 수 있다. 또한 정치집회, 강연회, 성인교육강좌등에 참석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의사소통 기능을 갖으며 가감승제의 기능 뿐 아니라 간단한 회계의 업무도 볼 수 있음(윤복남,1990a).

이러한 문해 개념의 변화는 곧 기초문맹이나 문자문맹이라는 전통적 의미의 문맹에서부터 기능적 문맹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문맹, 구조적 문맹, 의식의 문맹단계로까지 그리고 그 반대 급부적인 의미에서의 문해의 개념으로 전환, 확산되었슴을 의미한다. (최운실 외, 1989)

이밖에도 문해의 개념을 넓게 두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볼려는 관점으로, 즉, 기초(문자)문해의 개념을 공유부분으로 해서, 협의의 기능적 문해 개념은 생활 기능적 측면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보다 광의적인 기능적 문해의 개념은 생활 기능적 측면 외에 사회구조적 차원의 의식적 측면까지를 포함시키려는 접근이 있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문해는 단순한 문자 생활 문맹으로부터의 탈피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때의 읽기, 쓰기, 셈하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직업세계 등의 사회적 상황변수들과는 무관한 별개의 도구적 기본 기제였다. 즉, 자신이 처해 있는 실제 생활에 얼마나 유효하게 또는 의미있게 그러한 읽기, 쓰기, 셈하기 기본기능을 활용할 줄 알고 적용하며, 실사회 내에서의 자신의 사회적 과제와 문제들을 처리하고 해결, 발전시켜 나가는데 얼마나 유용한 기제로 소용되는가의 측면이 간과된 단순한 독(讀) 서(書). 산(算)의 기능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러나 기능적 문해의 개념에서는 이와는 다른 접근을 취한다. 단순히 읽을 줄 알고 쓸 줄 안다는 그 자체가 문해가 아니라, 즉 독립된 별개 행위로서의 문해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 및 사회상황 내에서의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과 그 실생활에의 활용 능력까지를 전제함으로써 '사회적 적응기제로서의 문해능력'을 강조한다. 따라서 후자에서는 독. 서. 산의 세 기능들이 삶의 실제 과정에서 처할 수 있는 각종의 구체적 상황속에서의 실제적 기능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기능적 비문해(문맹)의 상태로 간주하게 된다.

원래 '기능적 문해'라는 용어는 2차대전 중 미국 군대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것으로서 당시 이 용어는 기본적인 군대 기능 및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문자화된 서류나 서식을 해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초등학교 5 학년 정도의 기초학력 수준으로 이해되고 있었다(Sharon, 1973).

한편, 커쉬와 구쓰리(Kirsh and Guthrie, 1977)는 개념이 모호하고 정확치 않은 기준하에서의 문해수준 측정은 의미가 없음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문해와 기능적 문해 그리고 기능 수행 능력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문해는 문자화된 기록물들을 단순히 얼마나 잘 읽어낼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며, 기능적문해는 생존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얼마나 잘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며 기능 수행 능력이란 기능적 문해와 달리 주어진 상황하에서 주어진 과제에 대해 적합하게 반응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내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짓고 있다.

그러나 레빈(Kenneth Levine, 1982)은 기능문해의 개념에 기능 수행능력의 개념까지를 포함시켜 문해란 단순히 문자화된 기록물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이며, 기능적 문해란 문자를 통하여 획득된 지식과 정보를 자신의 삶의 실제에 상황적 변수에 적합하게 유용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전이시킬 수 있는 실제 수행능력 보유 수준으로 구분짓고 있다.

이처럼 문해의 개념은 협의적 의미로는 우리의 '언어 및 문자생활'에 직결되는 기본기능으로 해석 될 수 있으나 그 개념이 확대되어 생활기능의 문해의 차원으로 넓혀져 가고 있다. 최근 비교적 널리 통용되고 있는 컴퓨터 문맹, 정치적 문맹, 의식의 문맹 등과 같은 용어는 모두 이 새로운 문해개념의 하위영역들에 기초한 개념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최운실 외, 1989).

지금까지 논의된 문해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결국 앞서 산업과 사회에서의 새로운 문해개념 논의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① 기초 학습능력으로서의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 ② 기초 학습능력의 실생활의 적용 및 활용능력 그리고 ③ 보다 확산적 의미에서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행동 및 의식적 차원에서의 적응 대처 능력 등으로 접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비문해인구의 추정

유네스코의 보고서에 의하면 아직도 전세계에는 10억 가량의 비문해자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중 98퍼센트가 개발도상국에 몰려있고, 그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존재하는 비문해자 수는 전체 비문해자의 3/4에 해당하는 6억6천만명이다. 아시아 지역이 전 인구의 36.3% , 아프리카 지역이 전 인구의 54%, 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이 전 인구의 17.3%이며 이중 여성층이 2/3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문해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1970년에 비하여 남성층의 비문해자 수는 감소하는데 비하여 여성층의 비문해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정수영, 1990: 91). 유네스코(1990)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문해률을 감소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 만인을 위한 교육사업"(Asia-Pacific Programme of Education for All: APPEAL)을 전개 해오고 있으며, U.N.에서는 비문해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1990년을 세계문해(International Literacy Year:ILY)해로 제정한바 있다.

한국의 비문해 인구는 대체적으로 감추어져 있고 문해의 기준에 따라 다른 통계가 나올 수 있다. 1930년 일본에 의해서 실시되었떤 조선이들의 비문해율이 77.7퍼센트(황종건,1990)였었던것이 해방후 5차에 걸친 문해교육이 실시된후에 집계된 통계로는1958년 비문해율을 4.1퍼센트로 감소 시킨 것으로 집계되었었다(황종건,1990:30-31). 그러나 비슷한 년대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비문해율이 1959년 22.1퍼센트(중앙교육연구소집계), 1960년에 27.9퍼센트(경제기획원집계), 그리고 1961년에 8.1퍼센트(재건국민운동본부집계)로 나타난 바가있다(황종건 외,1990). 보통 우리가 말하는 문해의 기준은 자신의 성명을 읽고 쓸 줄 알며 간단히 1에서 10까지의 수를 읽고 쓸 수 있으면 문해자로 간주하였다.(김신일, 1989). 1970년 경제기획원에서 마지막으로 인구 센서스를 통해 문해률을 집계하였을 때, 무학 34.4퍼센트, 초등 교육이수자가 38.2퍼센트, 중등교육이수자가 21.8퍼센트로서 비문해 인구는 상당한 정도에 달하고 있었으며 그 후 15년 동안 문맹율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나 1980년의 잠정적 집계로는 무학19.8퍼센트, 초등학교 졸업이 34.6퍼센트, 중등학교졸업이 37.0퍼센트로 나타나 있다.

1985년에 전체 인구 센서스에 나타난 수치에 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의 총

성인인구(28,324,340명)중 10퍼센트가 넘는 2,845,557명이 학교에 전혀 다녀보지 못한 불취학 인구로서 이들 대부분이 국민학교 1학년 수준 이하의 비문해인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이들 불취학 인구 가운데는 의무교육이 실시된 이후에 혜택을 받고 학교에 다녔어야 할 50세 미만의 젊은층도 상당수 있음을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1988년초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교육과 농촌사회교육전공의 팀이 실시한 15세 이상의 농촌여성의 문해수준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농촌여성의 반수이상(51.9%)이 국민학교 3학년 수준이하의 비문해라는 사실을 밝힌바 있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성인(15세이상)여성중 국민학교 3학년 수준을 문해로 규정지을 때 비문해율을 약 20퍼센트(540만명) 정도로 추정 제시한 바 있다(정지웅,1989).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기간이었던 국민학교 6학년 수준을 기준으로 문해와 비문해를 구별한다면 15세 이상 국민의 약 3분의1 가량이,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본다면 약 반 가량이 비문해자가 되지 않을까 추측 할 수 있다.

3. 갈등사례를 통해서 본 비문해 여성의 생활상

한국여성생활연구원에서 문해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수기를 통해 비문해가 여성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져다준 심리적 갈등의 편린들을 사회에의 고발이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정찬남,1990)

사례(1) : 비문해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발이 되어 주는 대중교통 수단의 활용에 있어서 크게 불편을 준다. 시간을 아끼려면 버스나 전철, 기차 등을 타고 다녀야 하는 데 버스에 부착된 노선을 알리는 번호표나 노선표를 읽을 수가 없어 가능하면 차를 타고 다니는 곳은 일단 피하려고 한다. 부득이 차를 꼭 타야 할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같이 가 주기를 요청하거나, 타기 전에 남들이 눈치채지 않게 많은 준비를 하고 모험을 한다는 각오를 하고 나선다. 목적지 정류장을 중심으로 때로는 지나쳐서 내리거나, 혹은 덜가서도 내리며, 몇 번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철을 탔을 경우 내려야할 정류장이 얼마나 남아있나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해서 못 물어보고 일단 내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다시 탄다.

사례(2) 오늘날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은행과 관공서를 이용하고 있다. 글은 몰라도 살림을 전부 맡아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은행출입을 가급적 하지 않고 살아간다. 남편의 월급이 은행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생활비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손에 붕대를 감고 은행에 가서 대필을 의뢰한다고 한다. 젊은 사람이 손 두었다 어디에 쓰느냐고 무안을 당한 후부터 팔 다친 것처럼 하고 다녔다고 한다.

사례(3) 학교는 문턱에도 가 본 경험이 없는 어머니가 자녀의 학교 자모회에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였다. 어느 날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아침 일찍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의 말씀은 어머니가 한 시간 수업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 때 그 순간 세상은 온통 노랗게 보였고 그 자리를 어떻게 빠져 나가

야 할지 아찔한 나머지 거짓말을 하였다. 금방 들러 대기를 '남편이 직장에서 출장을 가는데 준비하다가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금방 다녀 온다고 하고 왔기 때문에 집에 빨리 가야 한다'고 대답하고는 학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줄곳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못배운 자신이 미워졌으며 돌아가신 부모님이지만 한 없이 야속하여 세상을 살고 싶은 심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한다.

사례(4) 자녀들이 글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었다. 글을 하나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데 대한 자책감, 숙제하다가 엄마에게 물어오면 "아빠오시면 물어보라"고 한다. 가끔 아이는 "엄마는 이것도 몰라요?"하며 도리어 반항할 때 자존심이 상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사례(5) 가장 가까운 남편, 결혼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이해하여주며 살다가 어느날 밖에서 중대한 사정이 생겨 전화를 잘 받아 두라는 부탁을 해왔다. 전화번호를 꼭 알아 놓고 어디에 있는지 행선지 등 간단한 사항을 알아두라는 부탁이었다. 아무것도 적을 수 없는 부인은 그 이후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또 하루는 남편이 수첩을 두고 나왔다가 친구의 전화번호를 빨리 찾아서 불러달라고 했다. 자신도 모르게 당황하여 수화기를 놓아버리고 고장난 것 처럼 받지 않았다. 급한 남편은 집으로 뛰어와 "남 배울 때 뭐 했느냐?" 소리를 질렀다. 진정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위의 사례에서 단편적으로나마 밝혀진 바와같이 비문해는 일상의 공공적인 생활에의 적응 뿐만 아니라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녀간에도 참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참으로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부터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비문해자의 심리적 장해는 결국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서 원만한 이웃과의 관계, 관공서에의 출입, 반상회, 학교, 세무관계, 투표, 자녀와 남편, 시부모와 형제, 심지어는 친구등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이루어 져야하는 곳에서 움츠러들어야 하는 불행을 모면하기가 힘에 겨웁다. 이같은 원초적인 고민,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존과 인권의 존엄성이 흔들리게 되는 이 같은 불이익으로부터 이들을 그대로 방치시켜 두고서 어찌 교육 평등과 복지교육, 지역사회복지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생존권적 차원으로 부터도 외면을 당한 채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비문해자들의 아픔을 정지웅교수는 마치 대중앞에 나신을 들어냄과 같은 수치심으로 표현을 하였다(Cheong, 1989).

하물며, 취업과 관련시킬 경우 비문해가 가져다 줄 불이익이란 이루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절박한 것이된다. 불운했던 시절을 상기 시키는 시대적 유물처럼 고학력사회의 빌딩 숲에 가리워져 있는 많은 비문해자들을 어찌 사회가 잊어버리고 외면을 할 수 있겠는가? 이들을 위한 교육적 배려는 여성의 복지적 측면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과거 여성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교육의 기회와 여성들이면 안방만을 지키게 만들었던 사회적 분위기는 문자(글)를 모르고도 한 세상을 무난히 살도록 여성을 사회화 시켰었다. 그 당시의 여성들은 지금보다 덜 답답하였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산업화 사회로의 급변환은 여성에게도 교육의 필요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이들,

차마 배우는 것을 엄두도 못내는 비문해 여성들을 위한 교육은, 국가나 사회나 가정에서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 비문해자들의 불편을 알아주고 늦게라도 배울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IV. 지역사회 복지와 여성의 비문해 교육

1. 지역사회복지와 사회교육

최근 제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안의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형평 증진을 위해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및 조세, 물가, 고용정책 등 소득분배 관련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둘째,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보호수준의 향상 및 복지수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충급여제도를 실시한다.

셋째, 사회보장재정의 안정을 도모하여 보험료부담과 급여의 형평성을 높이고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제도간의 정책범위를 조정하여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넷째, 지자제 실시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복지기능분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역할과 책임을 제고하고 지방복지 행정조직의 확대, 개편을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배치와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다섯째, 사회보장제도간의 연계를 유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도록 한다.

여섯째, 가족복지기능의 강화로 핵가족 추세에 따른 제반문제를 예방하고 가족복지기능을 회복하도록 한다.

이러한 것을 보면, 제7차 5개년 계획기간에 있어서 기존의 복지제도(프로그램)를 확충하고 그 효율성을 기하며 지방자치 시대에 알맞는 복지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이 사회보장부문의 기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요한 새로운 방향은 1 성장과 복지의 개념을 균형적인 것으로 보고 2 지방자치단체와의 복지기능을 조정하며 3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와 복지사무소의 설치 4 고용보험 및 농어민 연금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지적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과거에 비하여 매우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지방자치제 정착과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서비스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형태로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수를 확장하게 되었고 사회복지관의 주요 업무 내용은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지역주민의 복지의식 고취가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지역주민의 복지의식에 관한 교육은 사회교육적 측면에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 부녀자, 노인이 주된 대상이다.

최근에는 산업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영,유아 보육사업이 새로운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 중 여성을 중심으로 한 각종 사회참여 운동이 여성단체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복지 수혜자 중 연령층이 높거나 빈곤계층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한글을 해득하지 못하고 실제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비문해 문제는 사회복지관의 새로운 사회교육 영역으로 대두 되었고 비문해 때문에 오는 불이익을 극복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 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2. 현대사회에서의 비문해 문제

현대의 사회생활에서 문자는 대단히 광범하게 사용이 되고 있으며 그 용도 또한 다양하다. 히스의 조사에 의하면 문자는 적어도 일곱가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1)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획득의 수단으로서의 기초적 도구; 2)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전달; 3) 새로운 소식전달; 4) 기억활동의 보조적 기능; 5) 구어적 전달을 요하는 메시지의 전달; 6) 영구적 기록; 7) 과업의 수행등을 도웁는 확인성 기록 등이다(Heath, 1986). 엘베르트는 문자문화로인하여 형성되는 문자사회가 가지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 한 바 있다(Elwert, 1988): (1) 문자에 의한 의사전달 기능 인구의 확대; (2) 문자에 의한 의사전달 사회부문의 확대; (3) 역사기록의 누적에 의한 역사의식의 확대; (4) 각종 지식과 정보의 문자화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문자사회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첫째는 문자해득의 기회가 광범위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김신일, 1990) 문자 사회에서 문자의 습득 이야말로 생존을 위한 가장 기초적 요소이다.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비문해자(문맹)의 존재는 정당화될 수 없다. 개인의 여건 때문에 문자학습에 장애가 있다해도 사회는 그 장애를 뛰어넘어 문자를 학습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문자학습의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 문자 학습 기회의 불평등은 원초적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

더우기 과거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안방만을 지키게 만들었던 사회적 분위기는 문자(글)를 모르고도 한 세상을 살도록 강요한 셈이 되었고, 산업화 사회로의 급변은 문자의 필요를 더욱 가중시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이들, 차마 배우는 것을 엄두도 못내는 비문해자들을 위한 교육은 국가나 사회와 지역사회나 가정에서 좀 더 진지하게 받아 들여져서 비문해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늦게라도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문자를 해득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흔히 문맹 즉 눈은 뜨고서도 글을 읽지 못하는 장님이라고 지칭 했었다. 이러한 문맹이란 말은 일제하에서 뿐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줄곧 사용이 되어오면서 마치 이러한 글모르는 사람들을 무지하고, 무능하고, 창피하고, 권위없는 사람으로 비하해서 업신여기는 개념 이었다. 그러나 유네스코(UNESCO)를 주축으로 그 중요성이 논의되어온 문자해득의

논의는 문맹이란 절망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배워가는 과정을 중시하여 문해 즉 문자 해득의 단계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하려는 입장을 취하게되었다. 따라서 문자해득의 단계에 따라 비문해와 문해를 구분하게 되었고, 비문해의 경우나 문해의 경우가 모두 그 정도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에 이르고 있다. 비문해(非文解)란 문자를 바로 해득할 수 없는 상태 즉 글을 못 읽거나 못쓰는 상태를 의미하며 종전에 사용되었던 문맹(文盲)을 지칭하고있다. Literacy란 단어를 "문해(文解)"로 처음 번역하여 사용한 김종서 교수는 유네스코(1962)가 내리고 있는 문해의 정도에 따라 문맹자 또는 비문해자를 순문맹(Illiterate)과 반문맹(Semi-Literate)으로, 문해자는 최저문해(Minimum level of literate)와 기능적문해(Functional literate)로 구분 하기도 하였다(김종서, 1962).

3. 여성의 비문해에 관한 체계적 접근

위 장에서 밝힌 것과 같이 과거에 이해되었던 문맹의 개념을 UNESCO를 중심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세분화 되고 있다.

문맹이라고 사용되었던 Literacy의 의미를 구체화 하면 순문맹과 반문맹 등으로 구분했고 문해자 중에도 최저문해와 기능문해로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면 순문맹 뿐만이 아니라 기능문해까지도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문해에 실제 적용되는 최첨단의 computer언어까지 습득치 않으면 실제로 생활의 언어장애를 겪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사회복지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사회교육이 요청되고 있는에 언어의 활용과 습득 정도를 파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도구 그리고 교육의 방법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초적으로 비문해의 여성인구를 찾아내고 문해와 비문해 정도에 맞는 교과과정이나 교재가 개발되어야 하며 자원봉사자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많은 사회복지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computer교육이 활발히 되고 있으나 여성을 상대로 하는 언어교육은 등한시되고 강연회를 통한 교육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여성의 비문해나 기능문해는 여성자신은 물론 가정교육의 주체자로서 더 나아가 사회의 참여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복지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된다.

VI. 맺는 말

문자사회, 그리고 문자를 바탕으로 고도의 산업기술사회로 발전해가고 있는 현 사회에서 비문해자로 살아가고 있는 인구 특히 비문해여성들의 숫자가 결코 적은숫자가 아닌것이 밝혀지면서 국가와 사회로부터의 제도적 보호및 대책의 강구가 촉구되고 있다. 여성들의 비문해는 빈곤이나 실업 (失業) 및 불평등

고용이란 경제적 측면에서의 여성복지정책의 중대과제 못지않게 '인간다운 삶' 이란 인간적인 기본권의 위협과, 배워야 산다는' 학습권'의 박탈이란 차원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복지사회정책의 과제로 들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네스코, 한국교육개발원, 그리고 한국 문해교육협회 및 개인적인 연구및 집단적인 노력의 결실로 수집된 비문해에 관련된 문헌들과 한국여성생활연구원의 문해교육의 최 일선에서 비문해 여성들과의 눈물어린 각고속에 얻어진 경험들이 사례연구의 형태로 종합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결론과 제언이 도출 되었다.

첫째, 비문해자의 발굴 및 이들에 대한 비문해로부터의 해방은 향후 교육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지만 비문해자 특히 비문해여성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거국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둘째, 평생교육, 특히 사회교육에 있어서의 비문해 척결을 위한 노력이 배증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컴퓨터나 비데오 또는 특수 테리비젼 회로(CCTV) 등을 활용하는 문자해득용 교재의 개발보급이 정책적인 지원에 의하여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하겠다. 문해교육의 실시가 지금까지의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서 강사와 학생이라는 면대면의 학습방법에만 의존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사회가 개방적으로 그러한 학습을 조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해야 함은 물론, 손쉽게 독학이나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문해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복지관 혹은 평생교육관의 설립 운영등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성인 학습을 위한 문해교육용 교재개발과 문해의 단계별 학습을 도울 수 있는 성인에 알맞는 문해교육 교재의 개발 보급이 국가의 문화 및 교육적 정책으로 적극 지원이 되어야 하며 평생학습장으로서의 각종 사회 복지관의 기능 확대 및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지가 촉구되는 바이다.

넷째, 지역사회복지의 기초는 복지서비스이며 복지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데는 수혜자의 의식개혁이 요청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서비스와 교육이 조화외 균형이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 요청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 참 고 문 헌 〉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구 및 주택조사보고,"제1권 전수조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0-1985
2. 김신일 (1990). "비문해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한국문해교육협회, 문해교육연구 제1집
3. 김승한 (1981)." 福祉社會建設을 위한 社會教育理念의 探究", 한국사회교육협회, 社會教育研究 , 제6집
4. 金泳謨(1981). 福祉國家主義와 社會教育, 한국사회교육협회, 社會教育研究, 제6집
5. 김제태(1990). "한국문해교육기관의 개관", 한국문해교육협회, 문해교육연구 제1집
6. 김종서(1961)."문맹자 조사(1959년 12월 31일 현재)", 조사연구 제 5집, 서울:중앙교육연구소.
7. 김지자(1988). "도시 여성 기초 교양교육의 내용과 방법", 한국사회교육협회, 한국 사회 교육 협회, 사회교육수레 88-3자료 1
8. 모로오까(1981). "社會福祉를 위한 日本의 成人教育", 한국사회교육협회, 社會教育研究, 제6집
9. 신용일(1993). "교육심리학신강" 동문사
10. 윤복남(1990). 한국문해의 사회사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복남(1990a)."문해교육의 개념과 기준", 한국문해교육협회, 문해교육연구, 제1집
11. 정지웅, 최민호, 김성수, 임상봉(1989). "한국농촌 여성의 문해수준", 한국농업교육학 회지, 21:1
12. 정찬남(1990), "여성생활연구원의 문해교육", 한국문해교육협회, 문해교육연구 제1집
13. 최운실, 백은순 (1990). 한국의 문해실태와 문해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4. 최운실, 백은순, 최상근(1989)."한국인의 문해실태조사연구1차년도" 한국교육개발원
15. 한국사회교육협회(1988), "도시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 사회교육수레 88-3, 자료1
16. 한국사회교육협회(1988). "외국의 문해교육 실태와 발전 동향", 사회교육수레 88-1, 자료2
17. 황종건, 윤복남, 이지혜(1987). "한국 도시 여성의 기능적 문해 실태에 관한 연구", 미간행 연구물.
18. 황종건(1990)." 문해교육운동의 역사와 전망", 한국문해교육협회, 문해교육연구, 제1집
19. Cheong, Ji Woong(1992), "Problems of Illiteracy and Direction of

Literacy Education in Korea(Rep. of)", International Journal of
University Adult Education 31:1, pp. 28-34
20. _(1989), "The Psychology of Illiterate Rural Women in Korea", Yvonne Heslop, ed., Literacy: Focus on Asia and the Pacific(Special Issue to Commemorate International Literacy
Year 1990), ASPBAE Courier 47, pp. 60-63
21. Galtung, J. (1976), "Literacy edudation and schooling for what?" Bataille, L. ed. A turning point for literacy: New York: Pergamoon Press
22. Guthrie J. T. and I. S. Kirsch(1983)." What is Literacy in the United States?" Reading Competencies and Practicies Technical Reports#5, InternatioAssociation, 1983, ED258146
23. Levine, K. (1982)."Functional Literacy." Harward Educational Review, vol. 52, No. 3
24. Mendasa, T. L(1981)."Social Welfare and Social Work", (E. Q. Cornejo & Sons)
25. Romanyshyn J. M. (1971)."Social Welfare" (Random House, Kingsport. Unesco,"Practical guide to functional literacy", Unesco Paris, 1973
26. Vacharia Parin (1965). "Encyclopedia of Social Work(NASW)". p. 845
27. Wickenden, Elisabeth(1965)."Social Welfare in a Changing World", U. 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 C.
28. Wilensky, H. L Lebeaux N. C. (1965)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Free Press, N. Y. 張仁協(1975)譯, "産業社會와 社會福祉" 주식회사